시각적 재현 넘어 공간의 잔향·감각 '앵글에'

드영미술관 두 번째 기획초대전
사진 리일천展 9월 9일까지 열려
현상공간 1년간 탐구…작품집도

'The windows of the Future'

작가가 오랫동안 탐구해 온 공간과 시간, 그리고 존재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응축한 사진예술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은 개관 이후 매년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일상 속 예술 향유를 위해 기획초대전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두 번째 기획초대전으로 리일천 작가의 'Phenomenon Space-Chaosmos of Healing'전(제37회 개인전)을 지난 10일 개막해 오는 9월 9일까지 1~3전시실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전시는 1관에 신작 10점, 2, 3관은 작가의 작품 활동 중 전체 맥락을 보여주는 작품 등 총 32점.

44년째 사진작업에 몰두한 가운데 여백을 통해 더 큰 울림을 꾀했다는 작가는 기존 작업인 시공간 재구성을 하다가 현재 작업인 현상공간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느끼고 궁극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1년간 몰입해 준비한 결과물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집과 길, 도시와 건축물 등 우리는 삶의 궤적마다 다양한 물리적 공간을 만들고 스쳐 지나가지만, 그 모든 공간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이 아니어서 무심히 잊히고 사라지는 것에 집중한다. 특히 아무런 예고없이 마주친 공간의 한 장면이 뚜렷한 인상으로 남아, 기억 속 깊은 어딘가에 오래도록 머무는데 이같은 '문득'의 순간에 주목해 작업한 것들을 펼친다.

여기다 작가가 포착하는 것은 공간 그 자체이지만, 그 안에 설명되지 않는 정서적 파동과 감각의 여운이 스며 있는데 그는 인간이 부재한 공간의 문, 계단의 날카로운 단면, 벽과 바닥이 만나는 경계 등 건축적 요소들을 어떤 연출이나 조작없이 있는 그대로 사진에 담아낸다.

또 작가는 흑백 모노크롬의 이미지들이 표면적으로는 단순하고 고요해 보이지만 그 안에 인간이 부재한 채 남겨진 공간이 지닌 고유한 감각과 침묵의 진동이 응축돼 있는 점을 인지하는 만큼 단순한 시각적 재현을 넘어 우리가 무심히 지나친 공간의 잔향과 감각을 되살리는 매개로 몰입한다.

작가의 작품은 프랑스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 1908~1961)의 '지각현상학'의 맥락에 가닿는다. 메를로-퐁티는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단순히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 전체로 느끼고 경험하며 세계와 관계를 맺는 과정이라고 봤다. 이를테면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세계 속을 살아가며 그 안에서 끊임없이 감각하고 반응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작가의 사진은 바로 이러한 '살아 있는 지각'의 순간을 담아낸다. 그의 작품 속 공간은 관람자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을 넘어, 직접 그 안으로 스며들고 관계를 맺게 하는 체험의 장(場)과 같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흑백으로 표현된 미묘한 빛과 그림자의 흐름, 벽과 문, 계단의 단면, 구름의 움직임을 담아낸 천장의 창 같은 요소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마치 그 공간 속을 걷고 있는 듯한 감각을 일으킨다.

이번 전시에 맞춰 작품집 'Phenomenon Space'도 펴냈다. 작품집은 평론 '현상과 침묵 사이에서 리일천의 감각의 공간, 사유의 장소', 'Phenomenon Space-시간의 응시, 그리고 존재의 여백', 'Chaosmos -혼돈과 질서, 그리고 치유', 작가노트 '현상공간', 작품 목록, 프로필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분량은 겉표지를 포함해 100여쪽이다.

드영미술관 관계자는 "작가의 사진은 단순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감각과 존재의 울림을 담아내는 매개체로, 그의 작품은 보는 이가 공간과 깊이 있게 연결되며, 익숙한 세계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안내한다"면서 "광주 예술가들의 작품세계와 삶의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 유명한 작가의 또 다른 예술세계를 접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CULTURE
2025년 7월 1일 화요일

청년 작가 '아트광주 25' 참여를
광주문화재단, 특별전 작가 모집

광주문화재단은 호남 최대 국제아트페어 '2025 광주국제미술전람회'의 특별 프로그램인 '라이징 스타展(이하 라이징 스타전)'에 참여할 청년 작가를 오는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라이징 스타전'은 유망한 지역 청년 작가들의 미술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특별전이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아트광주 25' 현장 내 전시 부스 지원과 함께 도록 게재, 온오프라인 홍보 등이 제공된다.

모집인원은 총 3명이며, 참가자격은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에서 미술 분야를 전공했거나,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광주광역시로 등록된 19세 이상 40세 이하 광주 지역 청년 예술인이다. 장르는 회화, 조각, 판화, 사진, 설치, 미디어아트, 공예 등 미술 관련 전 분야다.

본격적인 접수는 1일부터 16일까지이며, 최종 선정 결과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작가는 광주문화재단 또는 아트광주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아트광주25' 공식 이메일(artgwngju.official@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김다경 기자 alsqlsdl94@gwangnam.co.kr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 정기공연 소리굿 '누산네 니단이' 연습 모습.

진도의 시간 어루만지는 '위무의 소리굿'
남도국악원 정기공연 '누산네 니단이' 4~5일 진악당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박정경)은 국악연주단 정기공연으로 창작 소리굿 '누산네 니단이'를 오는 4일 오후 7시와 5일 오후 3시 양일간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진도의 시간을 어루만지는 위무(慰撫)의 소리굿이다. 아직도 떠돌고 있을 이름없이 죽은 영혼들, 침묵과 숨죽임을 강요당한 통곡들을 씻김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고자 한다.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만이 해낼 수 있는 소재와 주제를 담아낸 이번 작품은 소리와 춤, 음악이 어우러진 단원들의 역량이 총동원된 걸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출은 국립국악원 대표 공연 종묘제례악 등을 연출한 남동훈이 맡았다. 음악은 관객과 공감을 추구하는 유민희 작곡가가 선보인다.

국악연주단 정기공연은 2012년 11월을 시작으로 매년 특색 있는 작품을 선보이며 국악연주단의 기량과 역량을 향상시켜 오고 있다.

공연 전후 진도읍사무소와 국악원, 장등문화센터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입장료는 무료. 문의 061-540-4042.

김다경 기자 alsqlsdl94@gwangnam.co.kr

추상미술 거장 몬드리안 발레로 재해석
ACC재단, '몬드리안-더 라인 오브 옵세션' 18~1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 사장 김명규)은 창작 발레 '몬드리안-더 라인 오브 옵세션'을 18일 오후 7시 30분과 19일 오후 3시 이틀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1에서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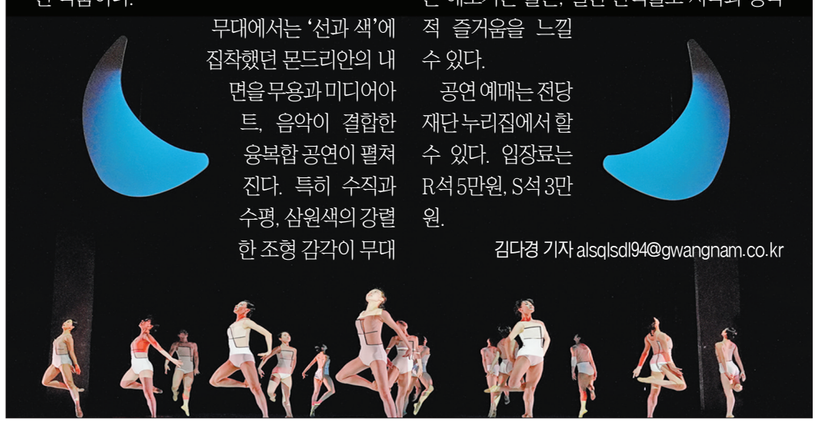
이번 공연은 20세기 추상미술의 거장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의 기하학적 선과 색채에서 영감을 받아 '발레의 언어'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무대에서는 '선과 색'에 집착했던 몬드리안의 내면을 무용과 미디어아트, 음악이 결합한 융복합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수직과 수평, 삼원색의 강렬한 조형 감각이 무대 위에서 생동감 있게 재현하며, 관객을 예술과 집착의 경계로 안내한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몬드리안이 추구한 미술의 본질과 안무가 정형일이 추구하는 발레의 본질이 빚어낸 창의적인 무대 미학도 즐길 수 있다. 정형일은 음악을 수식하는 안무가답게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에 영상기술을 더해 새로운 무대를 연출했다. 이를 통해 발레를 사랑하는 애호가는 물론, 일반 관객들도 시각과 청각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공연 예매는 전당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입장료는 R석 5만원, S석 3만원.

김다경 기자 alsqlsdl94@gwangnam.co.kr



섬세한 감정연기·나를 찾는 여정
'미지의 서울'…8.4% 종영

배우 박보영의 1인 2역 연기가 돋보인 드라마 '미지의 서울'이 시청률 8%대로 막을 내렸다.

30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tvN '미지의 서울' 최종회 시청률은 8.4%로 집계됐다. 자체 최고 시청률이다.

전날 방송에서는 쌍둥이 자매 유미지(박보영 분)와 유미래(박보영)가 인생 2막을 시작하는 과정을 그렸다.

'미지의 서울'은 저마다의 상처와 고난을 가진 인물들이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발을 딛는 과정을 보여주며 잔잔한 감동과 위로를 전했다는 평을 받는다.

첫 회 시청률 3.6%로 시작한 이 드라마는 입소문을 타며 6회부터 6%대를 넘어섰고, 8회부터는 7%대 시청률을 유지하다가 자체 최고 시청률로 종영했다. 무엇보다 주인공 박보영의 연기가 호평받았다. 박보영은 얼굴 빼고 모든 것이 다른 쌍둥이 자매를 섬세한 감정 연기로 차별화해 몰입감을 높였다. 연합뉴스